

墨香에 스며든 春香...응축된 삶의 생명력을 보라

'허탈재, 삶을 품다'展...6월14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

고요 속의 움직임, 절제 속의 생명력, 전통 속의 새로운 신작 '돌' 시리즈 등 삶·예술에 새겨진 新남종화 한자리



허탈재 화백

화면 가득 피어난 매화 사이로 색점을 하나하나 찍어 쌓은 꽃잎들이 봄의 생동감을 전한다. 허탈재 화백의 그림은 고요 속의 움직임, 절제 속의 생명력, 전통 속의 새로움이라는 역설적 조화로 오늘날 수묵이나 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 수묵의 동시대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예술적 지평을 넓히는 작품활동을 선보이고 있는 허탈재 화백이 전남도립미술

관에서 '삶을 품다'를 주제로 전시를 선보인다. 남종화의 거장 의재 허백련의 손자이자 소치 허련의 후손인 허탈재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삶과 예술에 남도 문화의 맥이 이어졌다.

그는 1980년대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와 스토니브룩대학교에서 객원교수를 지냈고, 이후 프랑스 파리 피에르 가르맹 미술관 초대전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전시를 열며 한국화를 알리는 활동을 이어왔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 온 그는 남도 문화의 전통에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킨 '신(新)남종화'라는 독자적 예술세계를 이뤘다.

사실적 묘사에 치중하는 북종화와 달리, 작가의 내면과 상징성을 중시하는 남종화의 정수를 오늘의 언어로 재해석한 것은 그의 그림만의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이때껏 작업해온 매화, 모란, 돌 시리즈 등을 소재별로 구성해 작품 세계를 보다 밀도 있게 소개한다.



'백매(白梅)'

'매화' 시리즈는 고요함 속 응축된 생명력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허탈재 수묵 미학의 정수를 할 수 있다.

만물을 순환시키는 자연의 근본이자 침묵 속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산수의 원형인 '돌' 시리즈를 통해서도 관조를 통해 본 아득히 먼 선경(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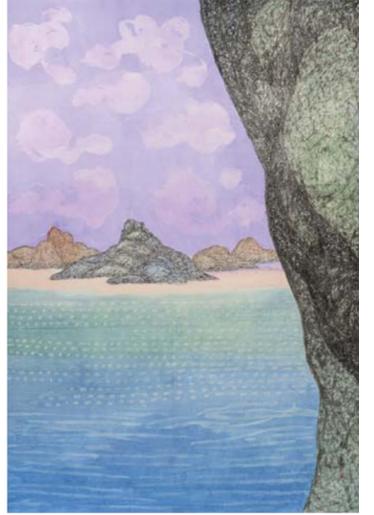
'백매(白梅)'

境)을 선사한다.

처음 공개되는 '섬' 시리즈도 있다.

허탈재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는 이 시리즈는 관물취상(觀物取象)의 태도로 자연을 재구성한 풍경이다. 자연을 사유와 정신의 원천으로 바라본 가운데, 마음으로 노니는 '와유(畵遊) 산수'의 경지를 구현한 것이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 관장은 "허탈재 화백의 예술은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내재적인 생명을 자각하고, 표현하는 행위인 그의 삶 자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묵향 속에서 피어난 봄의 생동감과 거장의 깊은 철학을 느껴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섬'

한편 전시는 오는 18일부터 6월14일까지 진행되며, 개막식은 18일 오후 3시 예정이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4월 아티스트 토크가 준비돼 있다. 전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작가의 작업 세계를 보다 깊이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최명진 기자

봄 정취 가득 품은 국악 한마당

국립남도국악원, 오는 21일 토요일 상설공연 '국악의 향연'

봄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국악 한마당이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진악당에서 국악연주단의 '국악의 향연' 공연을 개최한다.

이날 공연은 조선시대 왕이 행차할 때 연주된 '대취타'로 시작된다. 이어 성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 '춘향가 중 사랑가' 입체창, 농악의 전통적 구성과 놀이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무대화시킨 '우도설소고춤'과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를 차례로 선보인다.

봄의 계절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남도민요 '봄타령', '신사철가', '산타령'을 비롯해 경기도 무악인 도살풀이장단에 맞춰 긴 수건을 들고 추



'우도설소고춤'

는 '김숙자류 도살풀이춤'도 관객과 만난다. 공연의 대미는 두 개의 팽과리가 서로 대화하듯 주고 받는 짝쇠가락이 특징인 사물놀이 '웃다리농악'으로 장식된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장악과(061-540-4042)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뉴욕서 포착한 동시대 감각 'After New York'

무등갤러리 2026 전시지원 공모전

뉴욕에서 마주한 현대미술의 감각을 각자의 작업 언어로 풀어낸 전시가 마련됐다.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진행되는 기획전 'After New York'이다.

이번 전시는 무등갤러리 2026 전시지원 공모전으로, 김민·이영숙·정순아·황경숙 작가가 참여해 지난해 미국 뉴욕 방문을 통해 느낀 동시대 미술의 감각을 각자의 작업으로 풀어낸다.

전시는 이 네 명의 작가들이 지난해 여름, 뉴욕을 방문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MoMA, 휘트니 미술관 등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를 둘러보며 얻은 인상에서 출발했다. 해외 미술 현장에서 받은 자극을 저마다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한 작업들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다.

먼저, 김민 작가는 '평행이론'을 키워드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사유를 담은 작업을 소개한다. 해부학적 담론에서 파생된 인체 묘사와 연(蓮)의 이미지를 통해 잠시 멈춰 서

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제안한다.

이영숙 작가는 자연의 질서와 무질서를 물리학적 시각으로 해석한 작업을 선보인다. '동백 시리즈'를 통해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르는 자연의 움직임을 표현하는가 하면, '별과 은하'를 다룬 작업에서는 측정하기 어려운 시간공간을 추상적으로 풀어낸다.

정순아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 관계를 '땅의 약보'라는 개념으로 풀어낸다. 오랫동안 이어온 '황금벼' 작업은 금전적 가치가 아닌 태양과 바람, 그리고 노동의 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생명의 밀도를 상징한다. 땅에서 시작해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생명의 순환을 차분하게 풀어낸 작업이다.

황경숙 작가는 입체 작업을 선보인다. 철선 구조 위 배치된 얼굴 없는 인물 형상은 약보 위 음표처럼 배열되며 시각적 리듬을 만든다. 네 오디뎴 자석을 활용해 관람객이 인물의 위치를 옮길 수 있도록 구성해, 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몸소 경험하도록 했다.

이행자 무등갤러리 관장은 "뉴욕에서 경험



정순아작 'Golden memories'

한 동시대 미술의 감각을 지역 작가들의 작업으로 풀어낸 전시"라며 "해외 경험이 지역 미술의 새로운 시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